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 명 국 의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은 지금부터,

버스 증차는 운영개선의 시작점”

“환승은 이제 그만! 지역 내 거점시설 간 연계는 직행노선으로”

“대전시립예술단을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정 명 국 의 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증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이외에 지선과 공약사항 등의 건설사업 계획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전시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실행계획 마련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과거 2000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약 20년간의 도시교통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의 변화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로 고령자 및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승용차 이용은 증가하는데 되레 대중교통 이용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년간 고령자 인구는 13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2020년 기준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38만대에서 현재 약 70만대로 약 1.8배가 증가한 반면 도시철도는 2006년 개통 이후 추가 노선은 전무하고, 이용객은 1일 기준 약 11만 명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 22년간 시내버스 차량의 증가율은 0.29%로 2000년 당시 957대에서

현재 1,015대로 지난 22년간 대전시 시내버스의 증가는 단 58대이며 여기서도 예비차 51대를 제외하면 단 7대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전시는 대중교통분담률이 최저수준인 도시로 전락한 것입니다.

2008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도로환경의 변화가 이뤄졌지만 버스 노선의 변화는 민원에 따라 노선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정된 버스 대수로 인해 신규 개발지역이 생기거나 민원에 따라 노선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다른 노선에서 운영 중인 차량 대수를 조정하다 보니 지속적인 운영 개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임시방편으로 검토하다 보니 기존 노선 지역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커져가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이익이 되는 노선과 기존 이용지역에 대한 민원만 중요하고 교통약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뒷전인 행정처리가 시민들에겐 분노와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은 지난 22년간 대전시의 버스 증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진 만큼 대전의 과학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교통수요 중점지역 등을 토대로 한 개편안이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선 개편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탁상에서 공무원이 한 개, 한 개의 노선을 바라보며 개편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 대전시 전체 도로를 파악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지점, 터미널, 시청, 구청 등의 거점시설과 공공기관의 연계, 시민들의 버스 노선 민원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대중교통체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되 수요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별, 노선별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개편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다만 그 우선순위가 이익이 되는 노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별 교통약자를 고려한 직행노선과 환승노선이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포괄적인 교통수단 간의 환승만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서 바로바로 이용 가능하고 대중교통 간의 연계가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동구지역인 가양·용전·성남동 일원에는 26개의 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환승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환승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버스 환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은 택시나 자가용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거리가 환승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40분에서 5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동구청에서 지역행사나 단체의 교육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참석하려 해도 직행노선이 없기에 각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이동해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 사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이용객이 없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선이 없기에 못 타는 것이고 못 타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독 이 지역에만 직행노선이 없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께서 동구청장 시절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거점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과 동구청 신청사 간 직행노선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는 비단 동구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진잠동 외곽에서 유성구청까지, 기성동에서 서구청에 이르기까지 환승을 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 전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점시설과 공공기관 등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은 직행노선을 염두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버스의 증차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에겐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대대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아닌 사소하지만 세심하고 적재적소에 실현가능한 정책만으로도 편리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더구나 최근 온통대전 및 주민참여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여론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축소될 예산으로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동권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버스 증차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추진시기와 추진방향과 그리고 버스 증차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구 삼성동 일원에는 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점과 종점으로써 버스 노선의 신설 및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예를 들어 제시한 지역 내 거점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과 공공기관인 동구청으로의 직행노선은 지금 당장이라도 노선 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예술단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예술단의 평정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제9대 대전광역시의원으로서 당선된 후에 대전의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시립예술단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4개의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 평정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하는데 결과에 따라 다시 평정을 받아야 하는 유예기간을 2년 또는 1년으로 부여하고, 평정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듬해 다시 평정을 받도록 하며 수석, 부수석, 단원별로 각각 등급 영역을 설정해 총 11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지금과 같은 평정 규정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예술단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부터입니다.

등급에 따라 예능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단원들의 기량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정 시스템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과제곡을 정해 반복 연습 후에 평정을 치르기 때문에 평정을 통해 단원들 간의 기량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기량 발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정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등급별로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비율에 맞추어 단원들의 등급을 나눠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립예술단원은 지금과 같은 평정제도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평정을 앞둔 시기에는 연주 기량도 떨어진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등급 규정에 따라 부득이 낮은 등급의 평정을 받게 될 경우 전문 예능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에 추락되고 박탈감만 들 뿐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능 단원에게 가장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님,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그리고 무용단, 3개 예술단의 직장협의회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에 평정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문건입니다.

단원들이 사인한 문건입니다.

현행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총 185명 단원들의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관객을 만나고 있는 단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6대 광역시의 평정제도를 비교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대전의 평정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등 타 도시 모두 평정을 2년에 한 번 실시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경우 실기평정 없이 근무평정만 하고 있고 적용등급도 3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우리 대전만 유일하게 매년 평정을 실시하고 등급도 11등급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2017년 평정 시스템 개선 이후 평정미달로 징계

또는 해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원들의 기량이 유지되거나 상승했기 때문이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평정 과제곡을 연마한 것이라 제대로 된 기량 평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원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평정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여 기량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단원들의 생각이고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 등급 나누기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현재의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도 기량 향상을 끌어내 시민과 관객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이는 보다 우수한 예술단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시장께서는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대 핵심 전략과제로 대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의 평단원 한 명의 기량을 지켜내고 자부심을 높이는 일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립예술단 평정 시스템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야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예술의 감동은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립예술단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그리 가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가 있는 동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전예술의전당 한 번 가는 일이 참 멀게 느껴진다.”, “우리 대전시립예술단이 언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술단 홈페이지에 공연 안내가 되고 있고 간간이 TV나 지하철 광고,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공연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공연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의회에 입성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올 한 해 계획된 공연만 봐도 교향악단 80건 등 총 184건의 공연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특별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삼 저의 무관심을 탓하며 시립예술단의 홍보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대전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활동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의 지난 3년간의 홍보 현황을 보면 매월 열리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연간 총 80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반해 TV와 잡지 등의 광고 예산은 고작 1,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TV 스폿광고 예산은 550만 원으로 공연 1건의 제작, 송출료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방송사와 공동주관으로 협력을 맺어 입장료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열두 번의 정기공연 중 일곱 차례는 TV 광고를 시행했지만 나머지 공연들은 광고 없이 연주회를 치렀습니다.

권위 있는 클래식 전문잡지에도 1년 중 단 한 번, 1년간의 공연일정 계획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다른 예술단도 사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홍보의 제1원칙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조에는 대전시립예술단의 설립 목적을 대전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립예술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시립예술단의 모든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은 TV나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홍보 인쇄물을 대전 시내 모든 권역에 고르게 배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홍보 방안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과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공연을 향유하는 일에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대전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의 감동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이장우 시장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정명국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증차와 관련, 또 지역 내 거점시설 간 연계 노선 신설 및 조정과 관련, 대전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신규 개발지역에 노선 신설 그리고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 조정 그리고 배차간격 단축 등 다양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정된 시내버스로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합리적인 환승체계 구축을 노선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 2월까지 추진되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28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에 대비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교통 문제는, 저는 홍성기 시장님 때부터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인지, 버스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혼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랜드플랜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이냐, 버스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개 노선을 혼용하되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유익하게 개편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광역철도, BRT, 복잡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수단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또한 정명국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특히 동구 문제에 있어서 터미널과 구청 사이 또 그 밖에 급행2번 노선 연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에 여러 건들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정된 차로 어느 노선에, 어느 시내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면 다른 노선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현재 여건에서 신속하게 증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1단계에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80대 정도를 증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둔곡지역 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등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불편이 크기 때문에 증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한 대단지 주거단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몇십 대의 증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보면 시민들 열세가 대량 투입되고 있고 또 공영제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명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노선별로 너무 많이 거쳐서 가다보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현재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다가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아까 정명국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동구청까지 이런 단기노선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잡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유성구가 마을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시가 이관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신에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5개 구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인수할 시는 좀 더 확대개편해서 대전시민 전체가 단기노선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준공영제 플러스 여러 가지 공영제 이런 것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증차하고 한 번 늘리면 되돌아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결과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4호선, 장기적인 목표 아래 불편한 점은 저희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문제를 버스 중심으로 갈 것이냐,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이냐로 아직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중교통 문제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상버스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20~30년 후에 사실상 고령인구,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가장 이용이 편리한 도시철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추가로 7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에게는 내년부터 버스를 무료로 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복합터미널과 동구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양해해 주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버스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한정돼 있는 데서 잘 못하면, 어느 지역 걸 빼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면 상당히 그 지역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정 시스템, 대전의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평정 시스템 개선방안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시민들 혈세가 투입되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어떤 예술단도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단이 되는 것이 대전의 브랜드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운영체계를 지나치게 잘못 개선하면 단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기량 유지에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술단이야말로 시가 적극적으로 자질 향상을 하는지,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예술단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게 될 텐데 저도 세심하게 자질 향상과 기량 유지 그리고 대전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의 경쟁력 확보, 이 두 가지 방안이 일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단원들의 자질 향상 방안과 기량 유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단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발전방안 용역을 함께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이 2017년도에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상당히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술단의 여러 가지 성격상 장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단원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요즘 현대에 갖고 있는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대전시립예술단에 참여를 못 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의 기량 향상이나 자질 향상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 시립교향악단을 포함한 제2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한 대학에서,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하고 많이 공부한 우수한 자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대학의 시간강의 자리도 얻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실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이 좋지 않고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 시립교향악단이나 다른 예술단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도 상근을 하면서 지금처럼 단원이 대전시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일부 예산 지원하고 연습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그분들의 생업과 시간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겠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의 자질과 기량이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젊은 새로운 단원들을 투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것도 검토하겠습시다만 그와 함께 대전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술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활동 확대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대전에 예술의전당이든 공연장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고 싶어도 지금 대관을 못 하는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규모든 그보다 더 훨씬 제대로 기능을 갖춘 예술의전당을 추가로 건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확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연장도 현재 있는, 대학에 있는 공연장 그리고 시가 그동안 야외에 조성돼 있는 공연장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코로나정국이 종식되면 시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가까운 지역에서 대전시의 우수한 시립예술단을 포함한 이런 분들의 공연을 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수한 시립예술단이라 할지라도 만약 공연이 부실하다면,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접하기 어렵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홍보예산을 확충하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 시립예술단을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공연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신 조언의 말씀을 잘 검토해서 대전시의 문화예술공연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명국 의원(1차 보충질문)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 부분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한 결과,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들께서는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시정에 반영하시기 전에 단원들과 소통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시립단원들과 대화를 아직 저한테 하자고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전에 대전이 갖고 있는 예술단 전체에 대한

정확한 발전방안 용역이 나오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들의 자질 향상과 기량 유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만약에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기량이 없는데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것도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예술단이 기량이 높은 단원에게 나이와 경력에 관계없이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주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인사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련 국도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만나 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대전시의 시립예술단 중장기발전방안 용역 결과까지 함께 보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도시로 가려면 여러 가지 대중적인 공연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일반 공연도 있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은 정말 수준이 높아야 된다.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은 가서 정말로 공연을 보고 듣고 싶을 정도의 기능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 도시가 가야 될 목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기량들이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전에도 드린 것처럼 예술단원들의 불편한 사항은 불편한 사항대로 또 경쟁력 확보는 경쟁력 확보대로 함께 절충하면서 중장기 대전시립예술단 또 대전예술에 대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